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상 규명해야”

5·18기록관서 학술대회
군사정권이 자행한 국가폭력
수많은 고문·의문사 발생
정확한 피해자조치 파악 안돼



24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린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국가폭력을 묻다’ 학술대회에서 발표자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국가폭력의 과거사라고 주장했다.

군사 독재 정권은 독재타도와 민주화정체를 요구하던 대학생들을 군대로 끌고 가, 활동하던 조직 내용과 동료들을 발설토록 하거나 심지어 허위 자백까지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폭력과 고문이 자행됐고, 수많은 의문사들이 발생했지만 그 규모도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 폭력에 굴복하거나 가족들을 위협하는 협박 때문에 동료들을 밝힐 수 밖에 없었던 현실에 절망해 평생 좌절과 아픔을 안고 살아온 피해자들도 존재한다.

1970년부터 박정희정권에서부터 시작된 강제징집은 5·18민주화운동을 거치면

서 더욱 정교해지고 폭압적이며 치밀해졌다는데 참석자들은 모두 동의했다.

특히 전두환의 신군부가 정권을 잡은 1980년대에는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은 극에 달했다. 또 이들은 강제징집·녹화사업·선도공작의 피해자가 2006년 실시된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에 따르면 강제징집은 1152명, 녹화사업 피해자는 1191명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지만, 번호로 매겨진 2600명이 넘는 명단도 존재하고 있어 정확한 피해자조치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영수 상지대 교수의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재현하는 국

가폭력의 과거사 (재)정리라는 주제의 기조발표로 학술대회 1부가 시작됐다. 2부에서는 석원호 경북대 교수가 “국가폭력의 5·18,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의 윤리적·철학적의미”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고, 두번째로 조영선 변호사가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다”라는 주제 발표를 이어갔다. 각 발표마다 토론도 활발히 진행됐다.

기조발표를 한 강교수는 “그동안 한국에서 진행했던 대부분의 과거사 정리 작업은 ‘일제하 반민족행위’, ‘제주4·3사건’, ‘거창양민학살’, ‘5·18민중항쟁’, ‘민주화운동보상’, ‘의문사’, ‘과거사정리’ 등으로 개별적 사건을 중심으로 경제적 보상에 초점이 맞춰 졌다”면서 “권위주의적 권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진행된 반인권적 국가 폭력의 과거청산이 민주주의를 공고화 하는 역사의 정경대리가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원호 교수는 “과거사정리에서 문제해결의 주체는 피해자들인데, 강박적인 현재 권력에 흠여진 회원과 낮은 실무집행력으로 사업의 폭도 넓지 않고 속도도 빠르지 않으며 재정도 넉넉치 않다”면서 “다양한 회원들을 조직화하고 연구조사사업, 조직사업, 선전홍보, 임법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보건교사에 차량 2부제 관리하라니” 전남보건교사회 시설관리 업무 거부 선언

일반직 노조와 갈등 재현 조짐

환경위생 시설관리 업무를 둘러싼 전남 지역 보건의료인들과 일반직 공무원간 갈등이 2년 만에 다시 재현될 조짐이다.

전남교육청이 보건의료인의 행정 업무 경감을 골자로 한 직무 개편안을 전국사도 교육감협의회에 제출하려다 철회한 것을 두고(광주일보 2020년 6월 11일자 7면) 교육청이 일반직 노조와 전교조 양측으로 부터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보건의료인들이 일부 행정업무를 거부하기로 했다.

2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보건의료인 모임인 전남보건의료사회는 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보건의료인들에게 떠맡겨지고 있는 물탱크, 정수기, 공기정정기 관리 업무 등 시설관리 업무와 차량 2부제 등의 행정업무를 오는 29일부터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환경위생에 관한 직무에 대한 실효성 없는 논의 참가를 잠정 보류한다”며 “도교육청은 보건의료인들이 학생 건강관리와 보

건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마련하고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교육감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사의 직무를 ‘학생을 교육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사들은 수많은 행정업무에 노출돼 이로 인한 학교 내 갈등이 학교 교육력 상승과 교육과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 교육청은 단체교섭의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라”며 “이 과정에서 증폭된 교육주체 간 갈등 조정에 책임있는 자세로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관련된 시행령 개정안 추진으로 촉발된 것으로, 도 교육청은 지난 11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앞두고 실무협의안 안건으로 ‘보건의료인 직무 관련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건의’ 안건을 제출했다가 일반직 노조가 강력히 항의하자, 이를 서둘러 철회하면서 확산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아파트 건립 철회하라”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광주지역 환경단체가 무등산 신양파크 호텔 부지에 예정된 공동주택 건립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호텔 자리는 지역 사회가 영원히 보존해야 할 무등산 권역임을 고려해 본래대로 환경복원하거나 공공부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공동주택건설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며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 개발이 이어지는 잠재적 문제가 있는 만큼 무등산 자락 공동주택 단지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호텔 부지는 무등산 자락의 자연 녹지이며, 보전산지에 인접한다”며 “자연 녹지는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사유지 일지라도 시민을 위한 공공기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호텔로서 기능이 다했다면 개발이 아닌 복원을 검토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며 “호텔 부지에 주택 개발사업을 허가한다면, 무등산권 보전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에 대한 행정책임과 원칙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신양파크호텔은 지난 1981년 문을 열고 성업해오다 지난해 말 시설 노후와 영업부진 등으로 폐업했다. 건물과 시설이 남은 부지는 무등산 국립공원 경계 밖 자연 녹지지역·유원지·온천원보호지구 등에 자리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금호평생교육관 초·중학생 대상 12월까지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금호평생교육관이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찾아가는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이 협력하는 친화적 공동체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찾아가는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은 6월부터 12월까지 학급당 총 5회(10시간)로 운영된다.

초등학교 18개 학급, 중학교 9개 학급 등 총 27개 학급 584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에서 전문강사의 지도를 받아 토탈공예와 캘리그래피를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김경빈 금호평생교육관 과장은 “이번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지치고 혼란스러운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 주면 좋겠다”며 “다양한 활동 중심 프로그램에 참여해 각자의 적성과 특기에 맞는 꿈을 키우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의료진 힘 내세요”...초등생들이 보내온 감사 손편지



광주 중랑초등학교 2학년 1반 학생 20여명이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보내왔다. 24일 북구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이 학생들이 보내온 손편지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광주 서구 7월 4일 ‘명품 예비부부학교’ 강좌

광주시 서구가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명품 예비부부학교’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마음숲심리상담센터 박희석 소장을 초청해 ‘왜 나는 당신을 선택했을까?’, ‘소통은 행복한 부부를 만든다’ 등을 주제로 열린다.

강의는 오는 7월 4일 오후 1시 두드림 서구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이다.

접수는 온라인(서구청·서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두드림 서구평생학습관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방치된 묘지 70%(추정)

☎ 062-412-2800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광주에서 30~40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수목장 묘지이장 문의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